

전기차 잇단 화재, 억울한 배터리... 발화원인 오리무중?

K-배터리, 안전성 논란에 고전 원인 파악불가... 정밀조사 진행 “배터리 문제로 보기엔 시기상조”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배터리 산업이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발목을 잡혔지만, 아직 배터리를 원인으로 지목하기엔 선부르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에서는 배터리를 원동력으로 하는 전기차에서 연일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전 세계 배터리 업체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자사 제품이 탑재된 전기차의 화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전기차 화재의 유력한 원인으로 배터리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K-배터리’의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3사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LG화학의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은 15.9GWh로,



LG화학 전기차용 배터리셀(파우치 타입).

동기 전기차 배터리 총량(64.7GWh)의 24.6%를 차지해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6.3%와 4.2%의 점유율을 차지해 4위와 6위를 기록했다. 한국 3사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만 모두 35.1%로, 전년 동기(16.2%)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며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K-배터리’는 전기차 화재로 인해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

면 최근까지 현대차의 코나는 국내 10건, 해외 4건 등 총 1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지난 8일 결국 7만 7000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시정조치)을 결정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쉐보레 볼트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해당 화재 사건 3건을 조사 중이며, BMW와 포드는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종에 대해 리콜을하기로 했다. 현대차 코나와 GM 볼트에는 LG화학, BMW의 PHEV와 포드의 쿠파 PHEV에는 삼성SDI의 배터리가 공급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도 지난 8일 “차량 충전 완료 후 코나 전기차에서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배터리를 유력한 후보로 꼽은 바 있다.

이 같은 전기차 화재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서도 발생했다. 앞서 지난 5월과 8월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은 당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중국 완성차 업체 광저우기차(GAC)의 ‘아이온 S’ 모델에서 총 3건의 불이 났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배터리를 지목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터리가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배경에는 전기차 내에서 열이 나는 곳이 배터리밖에 없고, 불이 시작된 발화 지점이 배터리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자리한다. 하지만 최초의 발화 지점과 화재의 근본 원인을 구분해서 봐야 하며, 이러한 전제 아래 화재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화재 원인은 다양하다. 불이 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부분은 배터리가 맞다. 하지만 지금 배터리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화재 시작점과 발화 원인을 완전히 따로 두고 분석을 시작해야 한다. 배터리가 화재의 시작인 경우, 배터리가 원인이라는 것으로 아주 단순화되고 있지만, 별도로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화재의 시작이 배터리일 때, 그 원인을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완성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에서도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배터리만의 문제인지 혹은 배터리 팩이나 관리의 문제인지 등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끼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배터리 문제일 수도 있으나, 명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된 것이 아니다. 완성차 업체도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쌍용차, ‘올 뉴 렉스턴’ 사전계약 실시

사전계약시 계약금 10만원 면제
추첨 통해 임영웅 키 홀더 등 제공

쌍용자동차가 다음달 4일 출시하는 렉스턴 부분변경 모델의 사전 계약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사전계약하는 구매자는 계약금 10만원을 면제받고 추첨을 통해 트라기수 임영웅 음원 발매 기념 키 홀더와 무릎 담요 등을 제공받는다.

쌍용차는 신형 렉스턴의 라디에이터 그릴 크기를 키우고, 다이아몬드 모양을 적용해 렉스턴 특유의 위용을 강조했다. 실내는 사용자가 3가지 모드로 화면 구성을 바꿀 수 있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클러스터)이 탑재됐다. 쿼팅 인테리어도 업그레이드됐다.

8단 자동변속기와 차동기어 잠금장치(LD)를 적용해 험로 주파 능력을 끌



쌍용차 올 뉴 렉스턴 정측면.

어올리는 등 주행 성능도 개선됐다고 쌍용차는 설명했다. 전자식 레버 채택과 더불어 새로 디자인된 센터콘솔로 공간 활용이 더욱 편리하고 여유롭다. 또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안정적으로 방향 제어를 보조하는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이 적용됐다.

가격은 럭셔리 3700만~3750만원, 프레스티지 4150만~4200만원이다. 올 블랙 디자인의 ‘더 블랙’ 트림은 4950만~5000만원이다.

쌍용차는 다음달 4일 광고 모델인 가수 임영웅의 신곡 쇼케이스와 함께 신형 렉스턴을 선보일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KT, 비대면 학습 멘토링 ‘랜선 야학’ 운영

서울시교육청과 원격 교육 협력

KT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원격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비대면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랜선 야학’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랜선 야학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대학생과 중학생의 마음을 담아 KT 기술로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 멘토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화된 청소년들의 학습 공백 해소와 대학생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교사 5만1021명에게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원격 수업 이후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심화됐다는 비율은



학생이 KT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멘토와 랜선 야학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KT

80%에 달했다.

랜선 야학은 멘토 1명이 멘티 3명을 담당하는 4인 비대면 그룹 멘토링 형식으로 진행된다. 멘토링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은 국·영·수 등 기초 학력 과목을 중심으로 희망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대학생 멘토들은 KT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주 4시간씩 중학생 멘티를 만난다. /김나인 기자 silkni@

금호타이어, 타이어 4본 월 6000원 렌탈

도로로로 렌탈 서비스 실시

금호타이어가 타이어 렌탈 서비스 ‘도로로로 렌탈’ 서비스를 19일부터 실시한다.

‘도로로로 렌탈’은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론칭한 서비스로, 렌탈 플랫폼의 선두주자인 비에스렌탈과의 협업을 통해 제공한다.

가입 고객은 소형 차종부터 대형 차종 및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종까지 타이어 총 4본을 최저 월 6000원 가격으로 타이어를 렌탈 할 수 있다. 렌탈 기간은 24개월, 36개월로 고객의 운



타이어 렌탈 서비스.

전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타이어 위치 교환 서비스, 휠 얼라 이먼트 서비스 등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고객들이 원하는 곳으로 운전기사가 방문해 차량을 직접 수령하고 작업 후 다시 가져다 주는 금호타이어 타이어 프로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 ‘교체대행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SK렌터카 ‘EV 올인원’ 상품 출시

SK렌터카가 전기차 충전 요금까지 책임진다. SK렌터카는 19일 ‘EV 올인원’ 상품을 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EV 올인원은 월 렌탈 요금에 충전료까지 포함한 상품이다. 계약기간 중 약정 거리에 있는 한국전력과 환경부 충전기에서 무료로 충전을 할 수 있다. 충전소는 전국에 7000여개 있으며, 전국 충전소 중 80%에 해당한다. 전용 충전 카드로 결제 없이 사용자 인증만 하면 된다.

대상 차종은 기아자동차 니로EV와 르노 조에 EV 등 2종이다. 가격은 각각 월 68만3200원, 59만7200원이다.

/김재용 기자 juk@

인공지능 서비스 ‘누구’ 미래상 제시

SK텔레콤은 오는 20일 온라인을 통해 AI기술 교류의 장인 ‘누구 컨퍼런스 2020(이하 누구 컨퍼런스)’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3회차를 맞은 ‘누구 컨퍼런스’는 SKT가 국내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발자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진행된다.

SKT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SKT의 인공지능 서비스 누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AI가 고객의 실생활 및 비즈니스 영역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등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SKT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모델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누구 컨퍼런스 2020’ 참가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

자사의 인공지능 서비스 누구의 미래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SKT는 지난 12일 발표한 ‘T전화×누구’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한 ‘누구 케어콜’ ▲시니어 전용 서비스인 ‘누구 오판’ ▲그룹 영상통화 서비스 ‘미더스’ 등 다양한 AI서비스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